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범부 말 보고 안 보고는...초의에게 맡길 뿐”

〈주상운타첩〉에 수록된 이 추사 편지는 그의 문집이나 또 다른 추사의 간찰제첩본에도 소개된 적이 없는 자료이다. 간지가 없어 그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의 말미에 특구(勅具)라는 특 관련 후미운(後尾韻)이 있어서 그 시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추사의 명호를 연구한 최준호선생의 〈추사, 명호처럼 살다〉를 살펴보니 특구(勅具)란 “형식만 갖추어 글월을 씁니다”로 해석하였고, 초의를 비롯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추사의 편지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추사의 편지를 연재하면서 어렵듯이 짐작한 것은 특구란 후미운이 있는 편지는 대부분 추사의 제주 유배 시절이나 이들이 활발했던 교육 시기인 1830년 이후의 편지일 것이라 짐작된다. 추후 이 편지의 연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출현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상운타첩〉에 수록된 추사 편지

추사 '선언', 초의에게나 쓰직한 언어 '특구' 후미운...1830년 이후 편지 추정

년 윤 8월에 쓴 〈주상운타첩〉 후발에는 그가 1830년 두 번째 상경에서 그의 스승 완호의 탐명을 해겨 흥현주에게 받기 위해 상경했으며, 두릉으로 다산 정약용을 찾아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사 집안이 어려움이 있어서 해겨 흥현주의 별서 청량산방에 머문 사연을 소상히 기록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1831년 정월 중순경 청량산방의 보상암에서 봄밤을 즐기는 아회를 열었고, 이 아회에 모인 인사들은 흥현주, 윤정진, 이만용, 정학연, 홍희인, 홍성모, 초의 등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의 스승 완호의 탐명을 흥현주가 쓰게 된 연유와 이 탐의 사문을 신위가 쓰게 된 동기를 아울러 밝혀두었다. 이때 초의와 함께 운 승려

가 취임하였음도 이 자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초의는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여 자신의 제자 취연과 만휴뿐 만 아니라 아암의 고제(高第) 철선도 함께 가려했던 사실이 이 후발(後跋)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초의의 이런 장대한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만휴와 철선이 대둔사로 돌아가는 사단이 생겼으니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결국 1838년에야 실현된다.

따라서 추사가 이 편지에서 “또 지난 번 두릉에 간 것은 특별히 그대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 내용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초의가 상경한 사실을 알았지만 집안 상황을 전하기 위해 두릉을 찾은 것은 아닐까. 당시 추사는 초의의 두 번 째 상경을 도와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한 후, 초의가 원하는 완호의 탐명과 문사들과의 폭 넓은 교류를 도와 주려하였다. 하지만 집안에 큰 번고가 생겼으니 이는 곧 그의 부친인 김보경이 유배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그가 “중이 가득히 장황한 말들은 모두 구두선의 기만과 회통일 뿐입니다”라 하여, 그의 장황한 설명들은 모두 헛된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추사는 “범부의 말을 보면 보는 것이고,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이니 또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초의에게 맡길 뿐입니다”라 하니 범부의 쓸모없는 말을 보거나 보지 않는 것은 초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 이러한 추사의 선언(禪言)은 지인 초의에게나 쓰직한 언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근래 사오년간 산중에 머물며, 마음에 증장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옛날처럼 변함없이 모두가 뜻박이고 초조하고 시끄러운 것뿐입니다. 또 지난 번 두릉에 간 것은 특별히 그대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중이 가득히 장황한 말들은 모두 구두선의 기만과 회통일 뿐입니다. 범부의 말을 보면 보는 것이고,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이니 또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초의에게 맡길 뿐입니다. 이만... 특구(邇來四五年之間 住定山中 意謂有所增長 依舊是千弊操擾 又向斗陵去殊非所望於師也 滿紙張皇 盡是口頭禪 弄凡夫語 見則見之 不見則不見 亦不顯見 如此 艸衣任之而已 不式 勅具)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를 제정할 후, 1862

세상과 소통하는 보살행은 삶의 근원

소설가 남지심 씨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원장)

불교적 글쓰기를 결심하다

“보살도의 실천은 제 삶의 모든 근원이지요. 그러나 저는 작가가 이전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도자예요. 제가 배운 것을 끊임없이 행하며 나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죠. 완성도가 높은 보살이 되기 위해 경험을 넓히고 세상과 소통하며 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죠. 일단 방향을 잡았으니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죠. 그렇게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우담바라〉로 유명한 남지심 작가는 자신의 삶을 보살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기에 데뷔초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에게 글쓰기는 불교적 보살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한다.

고회를 맞은 작가는 이제 재가불교운동의 거목이 되었다. 스토리텔링사회적기업 얘기꾼,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33통일바라밀송 운동 등 고회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끝없는 경험을 통해 보살도를 이루어가고 있는 남지심 작가를 8월 27일 종로구 낙원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가에게 불교와 문학 또는 문학과 불교의 연결고리는 어디서부터 맺어진 것일까? 그 답은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을 선물 받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책이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아 모두 외워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이 그의 머리에 남았다. ‘정말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의문은 그녀의 20대를 따라다녔고 이를 풀기 위해 밤을 새워 책을 읽어 나갔지만 그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32살 때 우연하게 〈화엄경의 세계〉라는 책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화엄경 보살십지품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제가 원하고 찾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살의 삶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36살이 되던 설날 무렵 그녀는 소설 한 편을 완성하게 되었고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다.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 한 〈술바람 물결소리〉였다. 등단 소감에서부터 불교적 글쓰기를 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작가는 이후 〈우담바라〉 〈연꽃을 피운 들〉 〈욕심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새벽하늘에 향 하나를 피우고〉 〈도가다의 푸른 종소리〉 등 불교 관련 소설을 내놓았다.

“불교를 떠난 글쓰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지인들이 왜 불교 이야기만 하느냐 그러면 작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충고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꿈은 작가가 아니라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었으니 불교적 글쓰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 토크수행을 하는 청화 스님과 만나면서 불교와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청화 스님은 생전에 하루 한 끼의 공양을 하시며 토크수행을 하셨죠. 태안사의 한 칸짜리 가건물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처음 얼굴을 뵈었는데 웃는 모습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에서 도를 느꼈어요. 도라는 것이 실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이후 한 달에 한번씩 태안사를 들러 스님을 찾아뵈었어요. 그것이 불교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또다른 계기가 됐죠. 청화 스님 입적 후에는 전기 〈청화스님〉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재 · 콘텐츠 양성을 최우선으로

그렇다면 작가의 보살행은 무엇일까? 혼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이라면 작가인 그녀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불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작가의 보살행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쌓아왔던 작가적 경험을 세상과 나누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문학창작교육원과 스토리텔링사회적기업 얘기꾼이다.

지난해 남 씨는 불교문학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불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불교문학창작교육원을 개원했다. 소설 동화 수필 시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교육하고 있는 이곳은 개원 1년만에 3명의 작가를 배출할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기관은 수없이 많지만 여기서 배출된 작가가 지속적인 수입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그녀는 불교문학창작교육원에서 기른 인재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사회적기업 ‘얘기꾼’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재청 소속의 이 기업은 불교문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불교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작가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보 문화재 중 77%가 불교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서술한 논문들은 많아요도 진정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대중들에게 불교가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또다른 변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현재 ‘얘기꾼’은 국립공원 힐링로 100개와 북한산 봉우리 30여개를 스토리텔링 작업중에 있다. “북한산 봉우리 절반 가량이 불교 관련 명칭일 만큼 불교와 북한산은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작업이죠.”

특히 북한산 봉우리 이야기는 9월부터 본지의 연재로 만날 수 있으며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보살십지품 만나면서 해답 얻어

〈우담바라〉 등 불교적 소재로 창작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인재양성’ 매진

일체종생과 함께 하는 대승불교 실천

캄보디아 지원 · 탈북 대학생 지원 등

보살행 실천하며 종교적 완성 발원

세상과 함께 나누는 일

“중생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나누면서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것이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핵심이지요.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부처님처럼 진실하게 행하고 있나 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죠. 일체종생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목숨을 걸어 해볼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노력하고 점검하며 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을 지원하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과 탈북대학생 지원을 위한 ‘33통일바라밀송’ 등은 대중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남 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대표이기도 한 그녀는 지난 2009년 캄보디아 오지마을 뽕뽕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전인 2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플로트 정권이 몰려나면서 스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7년 전이었는데 당시 월 3만원이면 스님 한 분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문사 명성 스님과 함께 캄보디아를 찾아갔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캄보디아 승왕으로 불리는 텡봉 스님이예요. 스님을 통해 승가대 학생 중 33명을 선발해 월 3만원의 장학금을 약속했죠.”



캄보디아 승왕 텡봉 스님 한국 방문 당시 해인사 장경각에서



1980년대 후반 〈우담바라〉 집필을 마치고 경주를 여행하며 찍은 기념사진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뎀) 8cm]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속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테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94년도 산차 120g



판매처: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 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경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풀고, 풍한(風寒)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찌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 지름 7cm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남지심 작가는 ... 강릉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를 졸업했다. 198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술바람 물결소리>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온 이후 애환 가득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특유의 섬세하고 종교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장편소설 <술바람 물결소리>, <연꽃을 피운 돌>, <담무합>, <청화 큰스님>, 수필집 <욕심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공드집 <새벽 하늘에 향 하나를 피우고> 등이 있다. 특히 <우담바라>는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 4권이 150만부 이상 판매되는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원장,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간절하게 원을 세우니 도와주는 인연이 절로 생겼다. “대구에 강의가 있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갔는데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설조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님과 근황을 얘기하던 중 캄보디아에 다녀온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스님 개인이 50만원, 불국사 대중이 50만원을 내어 월 10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3년동안 스님들을 지원할 수 있었죠.”

20여년 넘게 텃밭 스님과 인연을 맺어오던 중 스님이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역 오지인 뽕보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줄 수 없다는 제안을 한다. “5만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 터라 거절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보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외손녀를 본 기쁨을 회향하겠다고 흔쾌히 학교 건립비용을 회사해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후 김재형 박사, 이명래 교수 등이 학교운영 후원자로 나서면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탄생하게 되었죠. 현재는 오시환 사무총장, 박기동 급속학 교수, 왕정은 사회봉사단장 등 3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나르는수레꾼’은 30여개 마을 우물 만들기 사업에 이어 프놈펜 대학 한국어학과 장학금 지급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 뽕보디봉 마을에 수레꾼 중학교 건립까지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뽕보디봉 마을은 군사적으로 위협 지역인데다 워낙 오지인 지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학교와 우물이 생기면서 큰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요. 현재는 1천 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 정도로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게 되었죠.”

최근 남 씨는 탈북 대학생 교육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듬해 통일바라밀술 운동으로 탈북 대학생 1명에게 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 대학생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형편이 어렵다보니 다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물론 국가에서 학비를 지급하지만 대부분이 생활비를 벌어



자비를나르는수레꾼은 2009년부터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립해 국제구호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학교를 방문한 남지심 씨.

써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월 30만원 정도면 탈북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용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그래서 한 명당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후원자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을 돕는 길이 통일을 위한 불교 인재 불사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하는 남 씨.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한의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진 않아요.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통일은 민족적 당위성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대전환점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고 동북아를 잇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 통일 인재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탈북자들의 탈북과 그들의 한국 내 정착을 돕는 일은 대부분 이웃종교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불교는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인재 불사를 위해서는 탈북 대학생들을 돕는 일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이 불자가 되어 북한에 불교를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작 단계인 현재 7명의 후원자가 결성된 상태이며 앞으로 33 후원자가 완성된 후 108 후원자까지 만들어 가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뜨겁던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그녀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새롭게 시작된 얘기꾼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신입생 모집에 통일바라밀술 후원자 모집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지심 작가. 불교적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으로 뛰어들어 보살도의 완성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가는 작가의 모습은 재가수행자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끝까지 묻는 단풍이 아름답다고 했건가? 그녀의 삶은 단풍처럼 그렇게 곱게 익어가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전법일기

영어담마캠프(3)

아이들과 5박 6일 캠프. 그것도 70명 가량의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매년 3월이 되면 마력에 걸린 사람처럼 캠프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장소 물색에 나선다. 나는 왜 이일을 할까? 사실 어른들 수련회 보다 열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캠프에서 친구와 화해하는 법을 익히는 아이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래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본다. 말씀을 피우고 돌아서서는 아주 순진한 눈빛으로 “스님! 캠프 너무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꼭 올게요.” 하는 순간 나는 묘한 보람을 느낀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노력과 정성’이다. 정성을 쏟다보면 반듯이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매해 캠프마다 선물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면 좋아 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캠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내면의 고요함과 무한한 능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은 어머니들의 욕심으로 가끔 무너지기도 한다.

이번에 경북지역에서는 열 명 가량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그중 5학년 태수와 민영이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밀려온다. 태수와 민영이는 저녁 늦게 도착했다. 사연인즉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해서 엄마가 달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다. 보통은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도 처음에는 입이 한발 나오고 시큰둥 하지만 일단 캠프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신나한다. 하지만 민수와 보현이는 달랐다. 둘은 처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림·박구원

음부터 프로그램에 참석할 의사가 아예 없어 보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드디어 담임교사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스님! 민수와 보현이 난리났어요.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어찌죠?” 나는 화들짝 놀라서 아이들을 교사 회의실로 불렀다. “너희들 정말 집에 가고 싶니?” 여전히 힘겹고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네” 한다. “그럼 캠프는 왜 왔지? 너희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니?” “네. 그랬지만, 저는 1박 2일 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5박 6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집 떠나서 하루 이상은 잔적이 없어요. 엄마가 하루만 자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없어요.” 태수의 말이다. 아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다. 엄마를 탓하며 달래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듯 했지만 둘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너무도 완강했다. “이곳에서 무엇이 제일 힘든지?” “많은 아이들 하고 같이 자는 거요. 어제 밤에도 못 잤어요. 지금 집에 갈래요” “지금은 밤10시가 넘어. 산속은 캄캄하고 차도 끊겼어. 어떻게 갈래?” “그냥 우리 둘이 걸어서 갈래요”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걷다보면 대구가 나온다 생각하나 보다. 나는 묘안으로 “절에서는 밤10시가 넘으면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단다. 내일 엄마에게 꼭 와서 데리러가 할테니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저는 절에서는 잠을 잘 수 없어요? 갈래요.” 끝까지 가겠다고. “잠이 안 오면 앉아서 참선해. 옛날 스님들은 몇 년씩도 앉아서 참선했다. 혹시, 알아요? 오늘밤 참선하다 너희 둘 다 도인이 될지, 얼마나 좋아. 절대 잠자지 말고 참선해라.” 나의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고 겨우 방으로 돌아갔다. 취침당번 교사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그날 밤 아주 잘 잤다고 했다.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어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형성된다. 결국 다음날 아이들은 웃으며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지만 그래도 2박 3일 집 떠나 생활하는 쾌거를 올렸다.



자루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만..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을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민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천지도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